

뿌리깊은 나무

일천구백칠십칠년 구월

뿌리깊은 나무 · 1972년 7월 21일에 제 3호 창간호로 시작됨 · 1972년 9월 1일에 발행됨(다달이 1일에 발행됨) · 통권 19호 · 서훈 증정 유제국 사서함 690호 · 등록번호 100) · 한국 브리태니커 회사 · 전화/793-3171~6



뿌리깊은 나무·한국의 문화 발전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바치는 월간 잡지·일천구백칠십칠년 구월호

편집위원/권 태준, 김 우창, 김 은국
김 정옥, 김 형효, 서 정수, 손 세일
이 용배, 윤 명로, 이 규호, 이 상만
이 학수, 최 정호, 한 완상

상임 편집위원/윤 구병
편집/박 종만, 강 창민, 설 호정, 김
명근, 김 인숙, 조 분행, 김 영로
(전화/794-9450)

학술/이 재성, 김 영옥
미술/이 상천
미술/손 전성, 김 무겸, 원 주연
사진/이 남수, 와이즈
광고기획부장/김 길용
광고기획/김 정길, 최 광성, 김 경희
(전화/793-8190)

부사장/이 연상
비서실/이 마리
행정관리처장/이 영재
회계부장/문 민호
회계/이 광균, 이 인술, 김 만승, 김
세창, 송 숙호, 이 경순, 정 순교, 최
윤자, 이 화자, 김 명숙, 김 영희
총무/김 제영, 고 영훈, 김 종식, 김
광수, 윤 용선
관리/이 명세, 김 정아
통상/남궁 용, 이 장재

사업관리처장/조 진용
신용관리/이 전상, 박 기근, 김 석오
박 중재, 봉 필자, 신 화배, 변 진영
집금관리/서 우춘, 신 동안, 최 종소
허 옥주, 서 상건, 박 인자, 김 경숙
한 은자, 박 영자, 정 금교

특수사업부장/장 정호
연감판매/홍 호선, 이 재은, 신 이순
정기구독/박 금남

판매지원부장/신 경효
판매지원/윤 중문, 김 명애, 최 신정

정기구독
제1지구장/박 태술
130지역/김 철홍, 최 창목, 김 광남
박 원식

140지역/지역장/성 하룡
강 봉주, 조 종철, 장 의훈

150지역/지역장/김 영필
박 동환, 박 영규, 정 우영, 이 창연
오 철근

530지역/지역장/권 익두
330지역/지역장/성 안호
오 덕량

제2지구장/구 홍일
110지역/지역장/손 영호
김 방언, 양 종신, 김 완섭

160지역/민 병천, 한 종수, 이 윤근
170지역/지역장/조 경환
배 두재

190지역/지역장/최 성울
510지역/지역장/양 영창
이 도선

520지역/지역장/공 병연
최 청수

제3지구장/김 홍권
120지역/지역장/윤 석금
이 동수, 이 경운, 손 시현, 김 상연

황 규빈, 손 존광
230지역/금 무영, 권 영주, 배 성권
조 창실, 최 대원

250지역/지역장/배 명근
한 준기

점포배포
서울 사무소/윤 중문
부산 사무소/김 종식
대구 사무소/이 창화
광주 사무소/김 성진
인천 사무소/김 철홍
발행·편집인/한 창기

뿌리깊은 나무·일천구백칠십칠년 구월
호·통권 제 삼구호·1970년 1월 27일
에 등록됨·등록 번호/라-1264·1972년
7월 24일에 제 3종 우편물로 인가됨·
1977년 9월 1일에 발행됨(다달이 1일
에 발행됨)·값 700원·발행·편집인/한
창기·인쇄인/이 일수·발행처/한국 브
리태니커 회사(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자동 17의 18·우편 번호 140-00·대체
계좌 514208·대표 전화/793-3171~6)
·인쇄처/명화당 인쇄 주식회사(서울
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60)·뿌리깊은
나무는 한국의 도서, 잡지 유통을
강령을 지킨다. 뿌리깊은 나무에 실린
글의 내용은 "논설"과 "편집자의 말"
과 "두드러기"에서 말하는 모두 필자
의 견해를 나타낸다. (뿌리깊은 나무
는 한국 문화 예술 진흥원에서 발간
비 일부를 보조받고 있다.)

11 편집자에게/편집자의 말 46 한 사회는 앞을 내다보아야 할까, 뒤를 돌아다보아야 할까... 박 동환

예술 비평

- 14 연극/깨진 아이들의 환상..... 이 상일
- 17 영화/아직도 답답한 숨통..... 하 길중
- 19 음악/모처럼 맛본 감격..... 한 상우
- 21 미술/조각가들의 집단 행위..... 김 윤수
- 24 문학/사회 구조가 낳은 모순..... 김 현

- 3 이달의 작품/김 기린의 그림..... 윤 명로
- 27 다시 보는 강화도(원색 화보)..... 손 세일
- 109 그는 이렇게 산다/시인 서 정주(삼색 화보)..... 설 호정
- 149 민중의 유산/떡살(원색 화보)..... 예 용해

- 54 한-일 경제 협력 십년의 수수께끼..... 조 용범
- 60 독초-약도 되고 독도 되는 풀..... 김 준호
- 66 서울은 병들지 않았다..... 강 병기
- 72 내 귀로 들은 김 형욱의 증언..... 김 대중
- 78 빛나가는 사립 학교 교육..... 손 인수
- 84 앓아간 땅 이름을 되돌려 다오..... 김 석득
- 90 양숙이자 한편인 형과 아우..... 김 명정
- 98 똑똑한 사람이 필요없는 사회라니..... 케네드 존스
- 102 부적의 뜻이 풀린다..... 김 민기

- 118 이것도 문제다/화장품의 값과 값어치..... 오 정희
- 126 이 땅의 이 사람들/신 채호와 최 남선..... 송 건호
- 134 털어놓고 하는 말/천일하다가 겪은 고생..... 윤 극영
- 142 숨어사는 외톨박이/팽개쳐진 민중의 무술 태권..... 김 명곤
- 154 이런 일이 있었다/어느 관리와의 다툼..... 송 현

대중 문화 비평

- 162 신문/낮 뜨거운 관능..... 유 재천
- 164 대중 가요/"에헤야, 날아라. 에헤야, 꿈이여."..... 최 경식
- 166 광고/유리한 진실과 불리한 진실..... 김 형윤

- 170 서평/한 완상의 「지식인과 허위 의식」..... 김 동길
- 172 서평/유 종호와 염 무웅이 엮은
「한국 문학, 무엇이 문제인가」..... 김 병익

- 26 시/삼청동 골목 이야기..... 유 경환
- 174 소설/뭉..... 호 영송

- 51 불 만한 풀불전/나라에서 만든 가짜
- 53 두드러기/돈과 차별 대우
- 117 뿌리깊은 말풀이/...(으)로부터..... 전 태하
- 141 오 상원 우화/여치와 하늘소..... 오 상원
- 182 논설/새 천일파가 생긴다

표지설명/구월에 접어들면서 늙은 햇볕의 어두만지는 손길에 고추가 익는다. 작디작은 민중의 양념이 민중의 의식처럼 붉고 맵게 익어 간다. (뿌리깊은 나무 사진)

발행처/한국 브리태니커 회사

춤사위 같던 손 놀림이 맹수의 앞발처럼 매서웁고, 우스꽝스럽던 발의 움직임이 학의 걸음처럼 신중하다.

팽개쳐진 민중의 무술 태권

김 명곤 / 뿌리깊은 나무 편집부 기자.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충주와 계룡산을 다녀왔으며 열일곱 사람을 만
나서 자료를 수집했다.

“하 나 둘 이크, 하나 둘 이크” 구령 소리가 매우 익살맞다. 구령에 맞추어 팔을 가슴 앞에서 휘휘 저어대고 한발을 앞으로 쭉 내딛었다가 뒤로 살짝 거두면서 허리를 가볍게 돌리는 몸짓은 엉락없는 춤이다. 무서운 느낌이 들기는커녕 오히려 흥겨웁기까지 하다. 두 사람이 마주 서서 한참을 그렇게 굴실대더니 “서거라” 하는 구령이 떨어지자 발을 멈추고 몸을 낮추어 선다. “거리재고”라는 구령이 떨어지자 서로 손을 내밀어 상대와의 거리를 재더니 “섰다”라는 구령이 떨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 사람이 발을 꼬아 발장심으로 상대의 아랫배 근처를 내지른다. 공격을 받은 쪽은 휘휘 젓던 손으로 발을 탁 쳐내고서 자기의 발로 공격한 쪽의 얼굴을 원을 그리며 후려 찬다. 그러나 그 공격도 상대가 슬쩍 몸을 비키는 통에 헛발질이 되고 말았다. 역습을 당한 쪽은 상대의 공격을 피한 다음 그 틈새를 노려 원

발로 상대의 원다리 안쪽을 차내어 뉘시를 걸어 보지만 이미 그런 공격에 익숙해 있는 상대는 발을 들어 오히려 상대에게 탄죽을 전다. 점점 거세어지고 날카로워지는 동작들을 보고 있으려니 처음의 흥겹던 기분이 짝 가시고 온 몸에 긴장이 감돈다. 춤사위 같기만 하던 손놀림—그것을 “활개짓”이라고 한다—이 먹이를 덮치는 맹수의 앞발처럼 매서웁고, 우스꽝스럽던 발의 움직임—그것을 “품밟기”라고 한다—이 위협을 눈치 채 학의 걸음처럼 신중하다.

“저 늑이 최 용규라고 두동 짜리고, 저 늑은 박 만엽이라고 한 동짜린데, 동이란 게 태권도 식으로 말하면 단이란 말입니다. 현대즈들끼리 하도 여러번 겨루다 보니 서로 수가 뻔해 와서 좀체 승부가 나지 않는구먼요.”

연습복에 땀이 흥건히 배이도록 승부를 내지 못하고 서로 빈틈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빙빙 도는 두 제자를 가리키며 충주에 있는

관장인 신 승 씨 (뿌리깊은 나무 사진)



“한국 정통 무술 태권 도장”의 관장인 신 승 씨가 말했다. 올해 선두살인 신 승 씨는 고무잡잡한 살결에 부리부리한 눈과 네모진 얼굴을 가진 생김새부터 영락없이 운동가로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는 연신 제자들을 불러 내어 들썩 짝지어 겨루게 해 놓고 저것은 무슨 기술, 저것은 무슨 차기 하며 태권을 설명하는데 어찌나 열심히 얘기를 하는지 정작 시합을 하는 제자들보다 땀을 더 많이 흘리는 듯싶었다. 충주시 용산동 새마을 회관의 이층을 임시로 빌어쓰고 있는 그 태권 도장에 가기 전에 이미 아랫 동네에 있는 그의 집에서 대여섯 시간이나 이야기를 나누었건만 아직도 할 얘기는 산더미같이 많다는 기세로 쉴새 없이 얘기하는 그의 역센 정력에 듣는 쪽의 기운이 빠질 지경이었다.

태권은 요즘의 젊은이들에게는 낯선 이름이다. 칠순 팔순이 넘은 노인네들 가운데에도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어렸을 때에 태권하는 것을 보았다는 노인들은 여럿 있지만 직접 가르침을 받아 기술을 익힌 사람은 겨우 다섯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다. 알려지기로는 서울 사직골에 사는 올해 여든다섯이 된 송 덕기 노인과 반포 아파트에 사는 올해 여든여섯이 된 김 홍식 노인과 이들에게서 태권을 전수받은 몇몇의 무술가와 함께 신 승 씨가 있을 뿐이다.

송 덕기 노인은 지금부터 칠십년쯤 전인 그의 나이 열너덧살쯤 되었을 적에 스물아홉살 난 임호라는 사람에게서 사직골 뒷산 잔디밭에서 태권을 배웠다고 한다. 그가 태권을 배울 때만 해도 서울의 사직골, 유각골, 삼청동, 애오개와 같은 곳에 태권꾼들이 많이 있어서 단오날이면 서로 이웃마을 태권꾼들과 수를 겨루었다고 한다. 고의 적삼에 솜버선을 신고 뒷산 잔디밭이나 개천 모래밭 같은 빈터에서 연습도 하고 겨루기도 했으므로, 특별한 도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한일 합방이 되고 나서부터는 일본 순사들이 태권꾼을 모조리 잡아가는 통에 태권을 하다가도 순사가 오면 와르르 달아났다가 다시 모여서 배우곤 하느라고 스승한테서 제대로 조목 조목 배우지 못했다고 한다. 평생 남하고 시비 한번 못 해 봤지만 지금도 젊은 사람 하나 둘쫘은 움적도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그는 팔순인 지금도 들

보기를 끼지 않고 신문을 보며 오십년 동안 계속해 오는 활쏘기를 하려고 아침마다 활터인 황학정에 오른다.

김 홍식 노인은 세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도 스물 남짓한 젊은 시절에 태권을 배웠다고 한다. 그때의 서울은 웃대와 아랫대가 엄격히 구별이 되어 있었고 문안과 문밖끼리도 구별이 엄했다고 하는데 웃대는 인왕산 아래 쪽 곧 대궐에 가까운 쪽을 일컫는 말이었고 아랫대는 청계천 건너 쪽이며 문안은 서울을 둘러싼 성문의 안 쪽이고 문밖은 그 바깥 쪽을 이르는 말이었다. 그런데 웃대는 주로 벼슬아치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세도가 대단해서 이것이 늘 불만인 아랫대 젊은이들이 가끔 웃대의 젊은이들에게 시비를 건네는 수가 있었다. 그러면 웃대에서는 태권꾼들을 모아 아랫대에 시합을 청하게 되어 서로 시합을 벌이는데 보통으로 시합을 할 때에는 “서기 태권”이라고 해서 먼저 넘어지는 사람이 지는 것으로 승부를 겨루지만 동네 사이의 감정이 나쁠 때에는 “결연 태권”을 하는데 그것은 서로 겨루다가 사람이 죽게 되어도 살인죄로 치지 않는다는 서약 아래 행하여지는 무서운 싸움이라고 한다. 결연 태권을 할 때에 쓰던 기술은 잘못 쓰면 위험하기 때문에 비법으로 전해져서 여간해서는 그 법을 배울 수 없었다고 한다. 그때에 동네끼리 실력을 겨루는 무술로는 태권 말고도 씨름이나 활쏘기나 편싸움이 있었는데, 김 홍식 노인은 어려서부터 즐겨 그런 무술들을 배워 겨루어 보았다고 한다. 그의 기억에 따르면 그때에 이름 높은 태권꾼으로 박 무경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구리팔개”라는 별명으로 불리었고 힘이 천하 장사여서 그가 나타나면 상대편 사람들이 모두 도망했다고 한다. 또 어떤 때는 문밖의 사람들이 도전해 오기도 했었는데 그런 경우엔 웃대와 아랫대가 한편이 되어 그들과 겨루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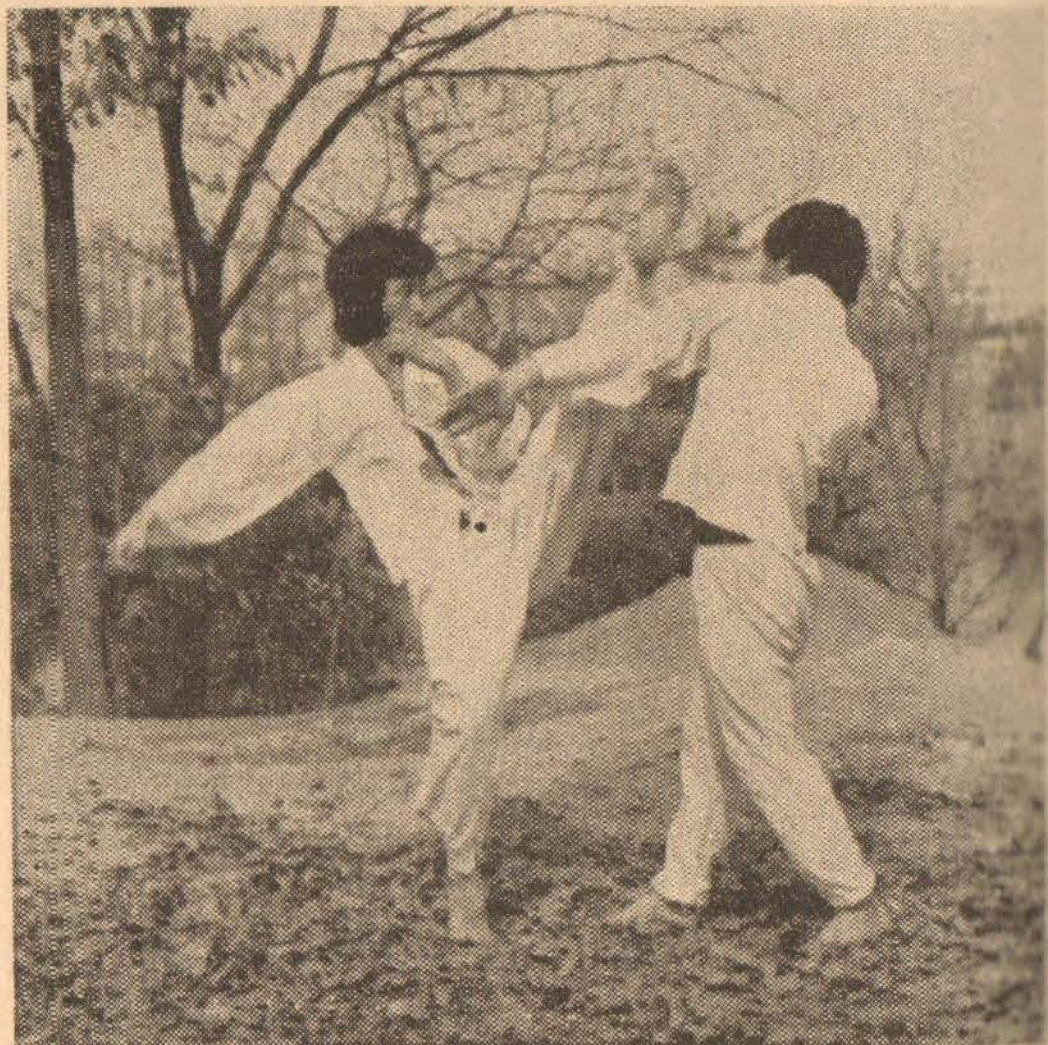
김 홍식 노인은 여러 태권꾼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때의 가르침이란 것이 스승과 제자 사이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저 남이 하는 기술을 보고 혼자 흉내를 내고 있으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오다가다 귀뜸으로 알려 주는 것이 고작이라 깊은 기술은 배우지 못했다고 한다. “잘 하는 사

람들 하는 걸 보면 무서웠어. 담장이고 뛰고 획 획 날랐지. 두발로 획 떠서 가슴을 차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서 그 다음 사람을 찾으니까. 하지만 난 조금 밖에 못 배웠어. 첫째로 부모님이 죽어서 말리시는 걸. 전달들이나 하는 짓이라서... 게다가 일본놈들이 태권한다 하면 모두 잡아다 죽였거든.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도를 했지.” 어린 애같이 흥겨워하면서 얘기를 하는 김홍식 노인은 숨이 가빠지는 것도 무릅쓰고 몸을 놀려 본을 보여 주기도 했다.

신 승 씨는 위의 두 노인에게 태권을 배워 끊어지려던 태권의 대를 이은 사람인데 본디 레슬링과 유도를 한 그가 뒤늦게나마 태권에 뜻을 둔 데에는 어릴 때의 주위 환경의 영향이 컸다.

그는 서울 왕십리에서 자랐는데 같은 동네에 살던 그의 작은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가면 으레 태권꾼들이 몇 사람씩 묵고 있어서 그들이 연습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다. 그의 작은 할아버지인 신 재희 씨는 오백석이 넘는 부자로 활쏘기나 씨름 같은 것도 좋아 해서 이름난 씨름꾼이나 반전달 같은 패거리들이 늘 그의 집 사랑방에 묵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에 태권꾼들도 일고여덟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씨, 김 씨라고 불리던 두 사람의 실력이 제일 나았다고 한다. 그의 작은 할아버지는 정작 태권 실력은 보잘것 없고 다만 좋아하는 정도였는데 신 승 씨는 어린 마음에 노인네들이 발길질이나 하고 전달처럼 노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태권꾼을 좋지 않게 여겼다. 그래도 그 집에 놀러 가게 되면 자연히 구경을 하게 되어 가끔 흥내를 내보기는 했는데 별스런 정성으로 한 것이 아니니 그저 어린 아이의 장난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가 중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에 전쟁이 한창 치열해져서 학생 지원병을 모집했다. 그는 소년 전차병으로 지원해서 특별 휴가를 얻어 연천에 있는 작은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가게 되었다. 그때에 폭격에 대비해서 서울을 비우라는 명령이 내려져서 친척들과 함께 그의 작은 할아버지도 연천에 내려와 있었는데 임진강변의 동네 땅이 모두 작은 할아버지네 땅이라고 할 만큼 부자이고 세력도 있던 터라 열개나 되는 그 집의 사랑방이 온통 사랑방 손님들로 꽉 차 있었다.



재 차기

그곳에서 여름을 보낼 때에 강가 백사장에서 오십쯤 된 노인네들이 젊은이들을 차 넘기며 꿈쩍 못하게 하는 것을 보고 슬며시 흥미가 당겨 조금씩 배워 보았다. 그 역시 총 노인이나 김 노인처럼 자상하게 배운 것이 아니었고 그저 동작을 흉내내어 혼자 연습하고 있으면 오다가다 보고서 몸을 더 가라앉히려느니 발은 그렇게 차는 게 아니라느니 하며 한마디씩 귀뜸으로 일러 주는 식이었다. 그렇게 몇달을 배우다 보니 웬만큼 태권의 동작이 몸에 익을 만하게 되었는데, 그 뒤에 해방이 되고 서울에 돌아오게 되면서부터 태권보다 레슬링에 열을 올리게 되어 스물아홉살이 되던 해에는 멜보른 올림픽의 후보 선수까지 되었다가 최종 선발 시합에서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 그 뒤로는 레슬링을 그만 두고 유도를 시작했다. 그 뒤에 그의 아버님의 관직이 송주로 옮겨지고부터 충주에서 유도를 했는데 그의 나이 마흔살쯤이 되었을 때에 우리나라의 전통 무술에 대한 관심이 생겨 태권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틈틈이 수소문하여 태권을 했다는 사람들을 만나 보았으나 그들의 동작이 어릴 때에 본 태권의 동작이 아니어서 실망만 하고 있던 중에 신문에 실린 송덕기 노인의 기사를 읽고 서울로 찾아가 만나게 되었다. 그때가 1970년 초봄 무렵이었다. 송 노인은 그의 끈질긴 간청에 못 이겨 봄 가을에 두어 달씩 아침마다 활터 뒷산에서 가르쳐 주게 되었다.

다. 그렇게 삼년쯤을 배운 뒤에 신 승 씨는 충주시 신민당 관사를 빌어서 애들을 가르쳐 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어달쯤 배운 뒤에는 애들이 모두 떨어져 나가고 말았다. 터놓고 얘기는 안 했지만 아이들이 태권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눈치였다. 가르치는 방식이 옛 그대로라서 눈에 익고 몸에 익은 사람에게는 어렵지 않지만 처음하는 사람에게는 동작이 어려워 통 먹혀 들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런 일로 고심을 하고 있던 터에 마침 김 홍식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 김 노인은 신 승 씨 친구의 아버지 되는 사람으로 처음에는 그가 태권을 한 줄도 모르고 유도하는 사람으로만 알았는데 우연히 태권 얘기가 나오자 김 홍식 노인이 자기가 옛날에 태권을 했다는 얘기를 하게 되어 그에게서도 태권을 배우게 되었다. 김 노인은 시대가 달라져서 태권을 옛날 식으로 가르치면 아무도 배우려 들지 않을 테니 처음에는 기본기를 모아서 가르치고 어려운 기술은 기본기를 익힌 다음에 가르쳐 보라고 권했다. 그래서 태권의 동작 가운데 기본이 될 만한 동작 열여덟 가지를 뽑아 기본 기술로 삼았다.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송 노인에게 보였더니 송 노인도 그렇게 해 보라고 했다. 그 뒤에 몇 가지를 덧붙여서 스물다섯 가지를 기본 기술로 삼아 아이들에게 쉬운 동작부터 순서대로 가르쳐 보았더니 훨씬 빨리 배워 나갔다.

우선 서는 자세를 원품, 좌품, 우품으로 나누고, 발을 이리저리 옮기며 몸을 굽실대고 허리를 능청거리는 품밟기를 익숙해질 때까지 익히게 했다. 그 다음에 손을 앞 가슴 근처에서 위아래 또는 양 옆으로 원을 그리며 저어대는 활개짓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시켰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발 기술을 익히도록 하였다. 발장심으로 상대의 무릎을 차는 깎음다리, 발등으로 상대의 발뒤꿈치를 바깥쪽으로 잡아채어 뒤로 넘어지게 하는 낚시걸이, 발장심으로 옆구리를 차는 걸치기, 명치를 차는 명치치기, 발바닥으로 따귀를 때리는 발따귀, 차 들어오는 상대의 발등을 발바닥으로 막는 발등걸이, 발오금으로 상대의 발오금을 걸어 뒤로 넘기는 탄죽, 그 밖에도 얼렁발질, 돌개치기, 두발낭상, 깨금다리, 따위의 다리 기술을 익히도록 하고 태권에서

쓰는 유일한 손 기술로 엄지와 검지를 벌려 상대의 목을 쳐내는 칼재비도 익히게 하였다. 그런 기술들을 익히게 한 뒤에 점점 약속된 동작으로 마주서서 겨루는 마주걸이를 익히게 한 뒤에 그런 겨루기에 익숙해지면 약속없이 겨루는 맞서기를 익히도록 했다.

그러자니 자연히 급수도 매겨 줘야 했는데 급수의 이름도 다른 무술과 달리 고유한 말로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다른 무술에서 급이라 부르는 것을 “째”라고 정하고 단이라고 부르는 것을 “동”이라고 정했다. 째는 첫째 둘째 할 때의 째에서 빌어왔고 동은 윗놀이에서 말이 모두 빠져 나왔을 때에 한동 났다, 두동 났다고 하는 말에서 따왔다. 그 이름을 정하는 데에도 송 노인과 김 노인과 상의하고 한글학자인 한 갑수 씨와도 상의하느라고 여간 힘이 들지 않았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전해 받은 무술의 이름은 여지껏 그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남아 있는 문헌에 그 이름이 저마다 다르게 적혀 있기 때문이다. 한글 학회에서 펴낸 「우리말 큰 사전」에는 “태권” 또는 “택권”이라 적혀 있다. 그 풀이를 보면 “한발로 서로 맞은편 사람의 다리를 차서 넘어뜨리는 경기”라고 했다. 이보다 먼저 나온 조선 총독부에서 펴낸 「조선어 대사전」에는 “택권”이라 해 놓고 “한쪽 발로 서로 넘어뜨리는 유희”라고 풀이해 놓았다. 그보다 좀더 오랜 문헌으로 구한말의 시인인 최 영년이 쓴

낚시걸이



「해동죽지」라는 시집 속에 “탁견회”라는 제목을 가진 한시가 있다.

다리를 놀려 백 가지 기예를 겨루고／가벼이 날아 올라 상투 끝도 스치며／꽃다움을 다투니 저게 바로 풍류일세／상투머리 차 내리면 의기가 불 만하네.

그 시에는 다음과 같은 주석이 달려 있다. “옛 적에 다리를 놀리는 기술이 세속에 전해져 왔는데, 서로 마주 보고 서서 한쪽을 차서 넘어뜨리는 기술이었다. 그 솜씨로 봐서 셋으로 나누었는데 솜씨가 좋지 못한 사람은 다리를 찔고 솜씨가 좋은 사람은 손으로 어깨를 밀쳤다. 솜씨가 훌륭해서 다리의 놀림이 날랜 사람은 상투를 차서 떨어뜨렸다. 이런 기술을 서로 겨루어 원수를 갚기도 하고 좋아하는 여자를 빼앗는 내기를 하기도 하니 관에서 이를 금하게 되었다. 그 뒤로 지금은 그 기술을 볼 수가 없게 되었다. 그 이름을 탁견이라 한다.”

그 글에 따르면 “탁견”이라 쓰는 것이 옳을 듯하기도 하다. 또 송 노인도 “태견”이나 “택견”이 아닌 “탁견”이 맞으며 탁견을 하는 사람을 말할 때에는 “택견꾼”이라고 했다고 하니 그의 말과 문헌의 기록이 서로 일치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입으로 불려지는 동안에 그 이름이 “택견”으로 되었다가 다시 태견으로 변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인지 대부분의 사전에는 태견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사전의 의견을 존중해서 태견으로 썼다.

바로 몇십년 전까지만 해도 전해 오던 기예가 이렇듯 이름조차 종잡을 수 없을 만큼 갑자기 그 자취를 감추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노인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태견이 중인보다 못한 하층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통에 체계적으로 기술을 모으거나 발전시킬 기회가 없었고,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전 달이나 한량패가 대부분이라 관에서 이를 금하니 드러내 놓고 남을 가르치거나 남에게 배울 수가 없었던 터에, 그나마 간신히 이어오던 맥도 일본의 무술인 탄압 정책으로 거의 끊길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백 가지가 넘는다는 시의 표현이 좀 과장된 말이라고는 해도 옛날에는 좀더 많은 기술이 있

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남아 있는 스물남짓한 기술로써는 태견의 온전한 모습을 알아 내기에 힘이 든다.

그러나 신 승 씨는 오히려 그렇게 된 것이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면 자기 나름의 생각을 보유했다. “신기한 기술, 오묘한 기술이란 것이 별게 아니라 사실은 모두 기본 기술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태견의 깊은 기술이 끊어졌다고 하지만 깊은 기술만 남고 기본 기술이 끊어진 것보다는 차라리 잘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대의 무술은 옛날 무술과 달라서 경기가 되어야 합니다. 지붕을 날고 담을 뛰어넘는 오묘한 기술보다는 기본되는 기술을 널리 보급해서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을 건전하게 기르는 경기의 모양으로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는 뒷날에 판단이 되겠지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는 그의 말대로 뒷날에 판가름이 나겠지만 태견을 어떤 모습으로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좀더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야 될 듯하다.

민속 연구가인 무 세중 씨는 태견과 탈춤의 손놀림이 비슷한 점과 발 놀림의 원리가 일치하는 점들을 예로 들어 태견과 탈춤이 한 모체에서 나와 나뉘어졌고 그 모체는 멀리 신라 화랑의 무예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신 승 씨는 “글쎄요”라고 하며 고개를 갸웃거린다. 그는 그 말을 듣고 탈춤을 구경하기도 해 보았지만, 태견의 활개짓과 탈춤의 춤사위는 별로 닮은 것 같지 않더라고 한다. 그는 조심스럽게 “탈춤은 춤이고 태견은 무술이니까요”라고 말하며, “그렇게 오래된 것이라면 왜 문헌에서 찾아보기가 힘들겠습니까?” 하고 되물었다.

맨손 무술에 관한 오래된 기록으로 고구려 신상왕 때에 만들어진 환도성 각저 무덤의 벽화에 두 사람이 옷통을 벗은 채로 한손을 앞으로 내밀고 발을 낮추고 서서 서로 겨루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런데 그 그림은 보는 이에 따라 씨름이라고도 하고 태권도라고도 하니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을 듯하다. 그러나 태견 쪽에서 보면 씨름이나 태권도의 자세라기보다는 태견의 자세에 더욱 더 가까운 그림이라고 보여진다.

그 뒤에 고려 때에 와서는 충혜왕 때에 “수박회” 또는 “권법”이라는 무술이 유행하여 왕이 상춘정에 항상 나와 그것을 구경하니 수박회를 전문으로 개설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수박회는 「조선 왕조 실록」과 정조 때에 집대성된 무술책인 「무예 도보 통지」에도 권박, 상박, 권법 따위의 여러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수박회가 태권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 도리가 없다. 문화재 위원인 예 용해 씨는 수박회를 우리말로 수벽치기라고 하는데 젊었을 때에 동대문 근처에서 “수벽치기”를 한다는 노인 몇분을 만난 적이 있다면서 그들의 말에 따르면 손을 주로 쓰는 기술인 듯하다고 한다.

「조선 무사 영웅전」을 쓴 안 자산은 수박회를 설명하는 글 중에 “근래에도 청년들이 씨름보다 소이한 수박회를 행함이 있던 바 소위 택견이라 하는 것이 그 종류다” 라고 하여 기록에 보이는 수박회와 태권을 같은 종류로 보고 있으나 수박회의 그림과 설명이 들어 있는 「무예 도보 통지」를 보면 수박회는 그 모양이 태권과 다른 점이 많고 오히려 중국 권법에 가깝다. 또 태권을 하는 송 노인이나 김 노인이나 신 승 씨 모두가 수벽치기나 수박회는 전혀 들은 일도 본 일도 없다고 하고 젊었을 적에 태권을 자주 보았다는 종로 6가에 사는 여든한살 난 이 범석 노인도 수벽치기나 수박회는 전혀 모르겠다고 하니 설 불리 태권과 수박회를 같다고 볼 수가 없다.

신 채호 씨는 「조선 상고사」에서 고구려의 무사들이 연마하던 무예를 설명하면서 “혹 칼로 춤도 추며, 혹 활도 쏘며, 혹 깨끔질도 하며, 혹 태권도 하며, 혹 강물을 깨고 물속에 들어가 물 싸움도 하며...”라고 적어 고구려 때에 태권을 했다고 설명했고 고려 때의 무예에 관한 글에서는 “송도의 수박회 곧 선비 경기의 일부분이니 수박이 중국에 들어가 권법이 되고 일본에 건너가 유도가 되었다”고 했으나 태권이 고구려 때에 행하여졌다 함은 신 채호가 본 그때의 태권을 기록에 나온 무술과 혼동하여 한 말인 듯하고 우리나라의 수박회가 중국에 들어갔다 함은 그의 추측에 지나지 않으니 믿을 만한 기록이라 볼 수 없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일은 기록을 찾아보면 태권보다 수박회가 더 자주 나오는데 정작 수박회

현상 수배

서른세살 된 남자, 직업은 목수, 긴 머리에 때때로 맨발로 다님. 사랑을 팔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사형 집행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죄목.



이 사내를 찾을 수 있는 영화가 바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입니다.

신 영균·고 은아·강 효실·구 봉서·곽 규석·이 순재·김 성원·남 진·이 영일·이 정길·한 상혁·김 희숙·박 용식·윤 복희·문 숙·도토리 자매·허 림·유 준

감동있는 주 기철 목사님 순교 영화
명보 극장에서 지금 480 원에 상영되고 있습니다.

연예인교회

선교기획실 21-2209

모시고 싶은 영화입니다.

는 그 기술이 끊기어 전혀 모습을 알 수 없고 태권만이 희미하나마 제 모습을 전해 오고 있는 점이다. 또 이상한 일은 태권을 보았다는 사람이 나 했다는 사람이 모두 서울 사람인 점이다. 시골에서는 태권을 보았다는 사람도, 했다는 사람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 이상한 것은 오래 전에 만들어진 사전과 달리 요사이 만들어진 사전들이 태권과 태권도를 혼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원사에서 나온 「세계 백과 대사전」은 태권을 태권도와 혼동해서 쓰고 있으며 민중서관에서 나온 「새 우리말 큰 사전」도 태권이 태권도와 같은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사전도 몇몇 있으나, 모두 그 설명이 불충분한 실정이다.

언론인인 조 풍연 씨는 요사이 흔히들 태권도를 “태권도”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태권과 태권도를 혼동한 데에서 오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며 태권도의 발음이 잘못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태권과 태권도는 누가 보아도 다른 성질을 가진 무술임이 확실하다. 태권과 태권도를 잠깐 비교해 보면 태권도에는 공격과 방어의 일정한 모양세를 갖춘 형이라는 것이 있지만 태권에는 형이 전혀 없으며 그것과 비슷한 것으로 “본”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 틀에 박힌 공격과 방어의 수가 아니라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가진 기술 중에서 그때 그때 생각나는 것을 상대에게 멋있게 보여 주어 자기의 실력을 과시할 때에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본때를 보인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보다 더욱 더 다른 점은 태권도의 동작은 동작의 기본을 직선에 두고 맺고 끊는 것이 명확하지만, 태권은 섬세하고 부드러우며 동작의 기본을 원에 둔다. 또 태권은 중국의 권법과도 달라 중국 권법처럼 동작이 길게 흐르지 않고 순간의 탄력을 중요시하며 중국 권법에서 자주 쓰이는 주먹 쓰기가 없다. 본디 무술이 사람의 몸으로 하는 노릇이라고 정된 틀에만 머무르지 않고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세 나라 무술이 서로서로 주위 무술의 영향을 받아 조금씩 변했으리라고는 짐작할 수 있지만 그래도 동작의 기본만은 쉽사리 변해지지 않았을 터이니, 그간 많이 변하기는 했겠지만 태권이 우리나라의 고유한 몸짓을 지니고 있는

무술임에는 틀림없다.

“참 힘에 겨운 노릇입니다. 재간도 없는 놈이 이런 일을 벌여 놓다 보니 일이 자꾸 어려워져서 그만두고 싶던 적도 여러번 있었읍니다. 기본기를 정해 놓은 것도 실상은 마음에 꺼림찍합니다. 원목은 원목대로 놔 두어야 재간 있는 목수가 깎아서 쓰지 재간도 없으면서 팬스리 고치고 다듬으면 되레 해치는 법인 줄을 알면서도 그렇게 해 놓았으니 말입니다.”

신 승 씨는 이런 말을 하며 이제 자기는 더 이상 태권을 다듬을 재간도, 의욕도 없노라고 여러번 강조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편으로 현대는 경기의 시대이니 태권도 경기를 할 수 있게 가꾸어져야 할 것이라고 여러번 주장했다.

이처럼 모순된 말을 열심히 되풀이하는 신 승 씨의 모순은 그의 모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순일 것이다. 원형을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과 그것을 시대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는 두 가지 일을 무리없이 조화시키기란 여간한 재간이 없이는 힘든 노릇이다. 보존만 하자면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을 테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면 원형이 깨어질 염려가 있다. 이것은 전통을 찾자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요즘에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안고 있는 어려운 숙제다. 신 승 씨는 자기가 더 이상 태권을 손질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다만 널리 소개하는 쪽으로 힘을 기울인다.

“이제 문화재 지정만 받으면 저는 뒷전으로 물러서렵니다.” 아무런 장식도 없이 태극기 하나만 덩그렇게 걸려 있는 우툴두툴한 이층 세멘트 건물에서 땀을 흘리며 수련하고 있는 스물 남짓한 제자들을 바라보며 그가 하는 말이였다. 한달에 오백원씩 건물 사용료도 되지 않는 회비를 받는다는 그는 그나마도 안 받으면 애들이 시시하게 알고 오지도 않는다고 하며 아직 뒤를 물려줄 마땅한 제자가 없다고 쓸쓸해 한다. 여지껏 그렇게 기운차게 얘기하던 것과 달리 미래의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쓸쓸해 하는 그의 모습이 태권만이 아닌 우리 전통 문화 모두의 모습인 것만 같이 느껴져 나도 덩달아 쓸쓸해졌다.